민주, 지역 현역 시·도의원 대거 탈락

광주 현역 생존률 27%
전남 현역 48% 살아 남아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광역의원(시·도의원)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했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은 전날 광주 광역의원 후보 15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100% 권리당원 투표 경선을 통해 공천을 확정지었다.

선거구별로 ▲동구 1선거구 홍기월 후보 ▲동구 2선거구(여성 경쟁 선거구) 박미정 후보 ▲서구 1선거구 강수훈 후보 ▲서구 2선거구(여성 경쟁 선거구) 명진 후보 ▲서구 4선거구 심철의 후보 등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남구에서는 ▲1선거구 서임석 후보 ▲2선거구 임미란 후보 ▲3선거구 박희율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고, 북구에서는 ▲1선거구 안평환 후보 ▲3선거구 신수정 후보 ▲4선거구 조석호 후보가 공천을 확정지었다.

광산구에서는 1선거구 최지현 후보, 2선거구 정무창 후보, 3선거구 박필순 후보, 5선거구 박수기 후보가 본선 진출을 확정 지었다. 앞서 북구 5선거구와 6선거구는 각각 심창욱 후보와 김나윤 후보 등이 각각 단수 공천됐다.

청년경쟁선거구였던 서구 3선거구와 광산 4선거구의 경우 투표 당일 시민공천배심원단을 추가로 모집하는 등의 당규 위반 논란으로 재경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광주 광역의원으로 공천이 확정된 후보 15명 가운데 현역 의원은 박미정(동구2)·임미란(남구2)·신수정(북구3)·조석호(북구4)·정무창(광산구2) 의원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단수 공천된 김나윤(북구6) 의원을 포함하면 현역 6명이 민주당 공천을 받아 본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경선 패배, 컷오프(공천 배제), 기초단체장 출마 등으로 민주당 소속 22명(전체 23명) 중 6명(27%)만 차기 시의회에 입성할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민주당 비례대표인 최영환 의원도 지난달 27~28일 경선에서 당규 위반이 적발돼 재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여 최 의원이 생존한다면 민주당 현역 공천자는 7명으로 늘어난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전날까지 광역의원 55개 선거구에 출마할 후보 55명을 모두 확정했다.

이 중 현역은 26명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 54명(전체 58명) 중 48%가 도의회 재입성을 위한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영암군수 경선 잡음…전동평 재심 신청 결과 주목

전동평 "우후보 불공정 경선 행위"
우승희 "당 시스템 따라 경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공천이 확정된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잡음이 잇따르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민주당 영암군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전동평 예비후보는 지난 2일 "공천장을 따낸 우승희 예비후보가 심각한 불공정 경선 행위를 저질렀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우 후보 측은 "당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 경선을 치렀다"며 전 후보 측 주장을 반박했다.

전동평 예비후보 캠프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에 경선 결과를 취소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 후보는 지난달 28일 선거구 권리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경선 방식을 안내하면서, 권리당원으로 투표하고 다음날에도 전화가 오면 권리당원이 아니라 하고 또 투표할 것을 지시 내지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 후보 측은 설명했다.

전 예비후보 측은 우 예비후보의 이중 응답 권유가 담긴 통화내역을 증거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민주당 영암군수 후보 경선 결과에서 우 후보는 현직 군수인 전 후보 등 2명의 경쟁자를 누르고 경선을 통과했다.

우 후보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당이 정한 시스템대로 경선을 치렀다"고 밝혔다.

한편,민주당은 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영암군수 경선과 관련, 재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민주당 '성평등 추진 기구 강화 국제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주최로 열린 '성평등 추진 기구 강화를 위한 국제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기간제 채용 압력 행사 혐의
박우량 신안군수 징역 1년

기간제 공무원 채용 시 면접위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신안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강나래 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탁받은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력서 등 서류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선거를 도와준 측근의 친인척, 향후 설립 예정인 신안군 미술관 전시품 기증자의 친인척 등을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6·1 지방선거 라운지

주기환 "복합쇼핑몰 함부로 입지 선정·추진은 경계해야"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3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위원회 소통분과 주관 '광주 복합쇼핑몰 공약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주 예비후보는 이날 "복합쇼핑몰 유치는 대부분의 광주 시민이 원하시기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지만, 함부로 입지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 이윤을 추구하는 입점 기업, 행정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광주시 담당 공무원, 그리고 수혜자인 시민까지 4개의 축으로 T/F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광주 대형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장연주, 공공의료 확충 등 7대 정책과제 협약

장연주 정의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3일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와 만나 공공의료 확충과 시민 건강권 보장 등 제도 개선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협약했다.

장 예비후보는 "광주의료원 설립으로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감염병 위기 대응 중추 역할 등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조속한 설립과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공의료기관 내에 장애인 분만실과 병동을 설치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등 광주지역 공공의료 기관의 운영방식을 정비하고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광주시에 시민건강국을 신설하고 광역만성질환 교육센터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주업, 전남공무원 연수원 부지 활용방안 마련 촉구

진보당 김주업 광주시장 예비후보 등은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의 중심은 시민이다. 전남공무원연수원 부지가 1년여 기간 동안 비어 있는데도 광주시는 뒷짐행정만 하고 있다"면서 전남공무원연수원 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지난 10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매곡동 연수원 부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티커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스티커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선호한 것은 스포츠센터(110명)였고, 문화센터(66명), 공원(60명)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도서관(16명), 중학교(9명), 행복주택(5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견에는 소재섭 광주시의원 후보(용봉·매곡·삼각·일곡), 손혜진 북구의원 후보(용봉·매곡·삼각·일곡)이 참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박혜자 '민주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제안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3일 "퇴행적인 교육정책을 도입하려는 보수정권의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민주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박 후보는 이날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들은 민주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각자 길을 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며 시대적 요구, 시민의 부름에 두 민주진보진영 후보들도 동참하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민선 4기를 열어가는 광주교육의 시대정신은 대전환"이라면서 "보수정권 출범에 맞춰 시대를 역행하고 교육대전환을 가로막는 세력을 막아내지 못하면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